

스리랑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5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 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66천 km ²	G D P	658억 달러 (2013년)
인구	20.8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 D P	3,162달러 (2013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Sri Lanka Rupee (SLR)
대외정책	독자적 실리노선	환율(달러당)	129.1 (2013년)

- 스리랑카는 인도의 남동쪽,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싱할리족 (74%)과 타밀족(7%) 등으로 구성됨. 타밀족이 차별대우에 항의하며 1965년 분리독립 운동을 시작한 이후 1983년에 내전이 시작되어 2009년에 종결됨.
-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실론'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으나 1972년 스리랑카로 변경함.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2005년 이후 라자팍세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으며 내전 종식 후 정국은 안정되고 있음.
- 스리랑카는 청정해안, 열대성 기후 등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섬유류, 차, 고무 등을 주로 수출함.
-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SAARC)의 회원국으로 서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제성장률	8.0	8.2	6.3	7.3	7.0
재정수지/GDP	-8.0	-6.9	-6.4	-5.8	-5.3
소비자물가상승률	6.2	6.7	7.5	6.9	4.7

자료: IMF.

□ 민간소비와 인프라투자 확대로 7.0%의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 스리랑카는 내전 종식 후 인프라 투자 확대, 관광업 호조로 2010년 이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함. 2012년에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루피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6.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에는 2012년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 및 민간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관광업의 성장으로 7.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1인당 소득과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에 힘입은 민간소비 회복과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7.0%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세수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 감소 추세 지속

- 스리랑카는 낮은 소득 수준, 광범위한 탈세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의 세원 발굴 노력과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감소추세이며 2012년 동 비율은 6.4%를 기록함.
- 2013년에는 도·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12%) 도입과 금 수입관세(10%) 신설 등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추정됨.
- 2014년에는 전자정부, 인터넷을 활용한 효율적 세금 수납 환경 구축, 토지 임대세(15%) 도입, 통신세 인상(20%→25%)등에 따른 세수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3%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4.7%까지 둔화 전망

- 스리랑카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침. 2012년의 경우 루피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5%를 기록함.
- 2013년에는 연료, 전력,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둔화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스리랑카 중앙은행(CBSL)의 확장적 통화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능력 확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장기간 지속된 내전으로 열악한 인프라

- 오랜 내전에 따른 투자 부족으로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여 해외투자 유치에 큰 장애물로 작용함.
- 낮은 도로 포장률, 철도시설 부족 등으로 물류비용이 높으며, 항만·공항 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원자재 수급과 제품 수출이 원활하지 않음.
 - 2014년 세계은행의 물류운용지수(Logistic Performance Index)에서 스리랑카는 160개국 중 89위이며, 특히 물류 인프라의 경우 126위로 하위권을 기록함.
- 또한, 상수도 보급률(2012년 기준 39%)이 낮아 공업용수가 부족하며 낙후된 전력시설과 잦은 정전 등으로 기업들은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협소한 내수시장 및 복잡한 해고절차 등에 따른 낮은 노동생산성

- 스리랑카는 인구가 약 2천만 명으로 인도 등 주변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유치는 어려움.

- 복잡한 해고절차, 고급 기술인력 부재, 생산설비 노후화, 많은 공휴일로 노동생산성이 중국, 베트남 등 섬유산업 경쟁국에 비해 낮고 임금은 서남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아 기업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청정해안 등을 보유하여 관광지로서의 잠재력 풍부

- 스리랑카는 청정해안을 보유한 열대성 기후 지역으로 연중 휴양지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내륙지방에는 다양한 자연 생태공원과 고대 유적지가 보존되어 있어 종합관광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높음.
- 2009년 내전 종식 이후 관광객은 증가 추세*이며 스리랑카 관광개발청 (Tourism Development Authority: TDA)은 2016년까지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 유치 계획을 발표함.
 - * 2010년 65만 명 → 2011년 86만 명 → 2012년 101만 명 → 2013년 127만 명
- 스리랑카 정부는 급증하는 관광객 수에 비해 열악한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관광상품 개발, 신규 호텔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리적 이점으로 서남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 가능

- 수도인 콜롬보는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동서 해상 운송로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서남아시아의 물류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 스리랑카 항만청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항만 인프라 확충 공사를 실시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정책 지속

- 스리랑카는 시장개방과 무역 증진을 위해 인도,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의 회원국으로 2006년 1월 서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에 서명하면서 회원국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음.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등 적극적 정책 추진

- 스리랑카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용, 100%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이익 배당의 자유 보장, 자유로운 주식 양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2013년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 평가(Doing Business)에서 조사대상 189개국 중 사업개시(54위), 투자자보호(52위), 수출입통관(51위)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함.
- 대 스리랑카 외국인직접투자는 2011년 11억 달러, 2012년 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14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증가추세를 보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 상 수 지	-1,075	-4,615	-3,915	-2,719	-2,673
경 상 수 지 / G D P	-2.2	-7.8	-6.6	-4.1	-3.8
상 품 수 지	-3,480	-7,683	-7,490	-6,428	-6,081
수 출	8,626	10,559	9,774	11,075	12,715
수 입	12,106	18,242	17,264	17,502	18,795
외 환 보 유 액	6,710	6,248	6,378	5,765	5,750
총 외 채 잔 액	24,800	29,400	33,700	35,500	37,600
총 외 채 잔 액 / G D P	50.0	49.7	56.7	54.4	53.4
D . S . R .	11.1	11.1	17.2	17.3	17.6

자료: IMF, EIU, OECD.

□ 정부의 수출장려 정책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 축소 전망

- 스리랑카는 내전에 따른 산업기반 약화로 고무 등 1차 상품과 부가가치가 낮은 차, 석유류를 수출하며, 원자재, 석유 등을 수입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2012년에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상 등에 따른 수입수요 축소로 상품수지 적자는 75억 달러를 기록함.
- 2013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금 수입관세 신설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폭은 64억 달러로 축소됨.
- 2014년에는 수출업자들에 대한 항구·공항 이용부담금 하향조정, 세금 감면 혜택 부여 등 정부의 수출장려 정책으로 상품수지 적자는 61억 달러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 **관광업 호조와 해외송금액 증가로 GDP 대비 경상적자 비율 감소 전망**

- 상품수지 적자 축소, 관광업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로 2012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6.6%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2013년 동 비율은 4.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관광시설 개선, 항구 확장 등을 통한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와 해외송금액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3.8%를 기록하며 감소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한 국채발행으로 외환보유액은 전년 수준 유지**

- 2012년 외환보유액 규모는 IMF의 구제금융*과 국채 발행으로 64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2013년에는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57.7억 달러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 스리랑카는 2009년 IMF 차관 도입에 합의하여 2012년까지 26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음.
- 2014년 스리랑카의 외환보유액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한 국채 발행 등으로 57.5억 달러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외채규모가 과중하나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채무비중이 높은 편**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1년 49.7%에서 2013년에는 54.4%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규모가 과중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2012년 총외채 중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 비중이 49%로 높은 편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외채증가와 수출 감소로 2012년 17.2%에 이르렀으며 2013년에도 17.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Ⅲ. 정치 · 사회 동향

1. 정치 동향

□ 과반수 이상의 의석 확보로 안정적 정국 운영 토대 마련

- 2010년 1월 실시된 대선에서 통일인민자유연합(UPFA)의 제1당인 스리랑카자유당(SLFP) 출신 라자팍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2010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UPFA가 과반이상 의석(총 225석 중 144석)을 차지하여 다음 총선인 2016년까지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토대를 마련함.

2. 사회 동향

□ 타밀족 민간인 학살 의혹 등으로 싱할리족과 타밀족 간 갈등 잠재

- 타밀 반군(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과의 휴전협정 폐기(2008. 1월) 이후 정부의 타밀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성공하여 26년 동안 지속된 내전이 2009년 5월 종식되고 2011년 8월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됨.
- 내전 당시 타밀족 민간인 학살 의혹(4~10만 명 사망 추정)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싱할리족과 타밀족 간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강화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

3. 국제 관계

□ 타밀족에 대한 인권문제로 서방국가와 긴장관계 유지

- 2012년부터 미국과 EU는 UN인권이사회를 통해 타밀족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살문제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으나 스리랑카 정부의 거부로 스리랑카와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2012년,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UN인권이사회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주도 하에 스리랑카 군의 전쟁범죄와 관련한 조사 착수, 소수 민족과의 화해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 결의안이 채택됨.

□ 인권문제로 인도와의 관계는 악화되었으나 중국의 지원규모는 증대

- 스리랑카는 인도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인도 정부가 스리랑카의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하면서 협력관계가 강화되었음.
 - 인도의 스리랑카에 대한 UN인권이사회 결의안 찬성으로 스리랑카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2014년에는 인도가 동 결의안에 대해 기권함.
- 한편, 중국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원조 및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중국-스리랑카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향후 양국의 관계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13. 6)	6등급 (2012. 3)
S&P	B+ (2010. 9)	B (2008. 12)
Moody's	B1 (2013. 7)	B1 (2010. 9)
Fitch	BB- (2013. 4)	BB- (2012. 5)

- 2013년 6월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는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견고한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 등을 이유로 종전의 6등급을 유지함.
- S&P와 Moody's는 2010년, Fitch는 2011년에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으로 평가한 이후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7월 Moody's는 GDP 대비 높은 재정수지 적자 지속, 외환보유액 급감 등으로 스리랑카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2.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무난

- 2013년 9월 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18.1억 달러(단기 2.1억 달러, 중장기 16.1억 달러) 중 연체액은 20만 달러에 불과하여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무난한 수준임.

□ 주요 ECA의 지원 태도

- 미국 EXIM :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한·스리랑카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 출	344	320	299	편직물, 인조장섬유직물, 철강관, 자동차
수 입	82	72	84	의류, 식물성물질, 식물성재료
교역규모	426	392	383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교 수립: 1977년 11월 14일 (북한과는 1970년 6월 25일)
- 주요 협정: 항공협정(1978년), 문화협력협정(1978년), 투자보장협정(1980년), 무역협정(1984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86년), 과학기술협력협정(1994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스리랑카와의 교역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4.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 교역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해 2013년 3.8억 달러를 시현함.
 - 특히, 2013년에는 한국의 대 스리랑카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 철강관 수출이 전년대비 각각 57.1%, 33.5% 감소함.
 - 우리나라의 대 스리랑카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기준 156건, 1억 7,549만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함.
 -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1억 6,269만 달러로 전체투자의 92.7%를 차지하며, 제조업종별로는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포함)이 전체 제조업의 60.5%임.

V. 종합 의견

- 2013년에는 건설업과 관광업의 성장 등으로 7.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민간소비 회복과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7.0%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부가가치세 대상 확대, 금 수입관세 신설 등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정책으로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효율적 세금수납 환경 조성, 토지임대세 도입 등으로 동 비율은 5.3%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 라자팍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총선에서도 여당이 승리하면서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이 마련됨. 타밀족과 관련된 인권문제, 인종차별, 언론탄압 등 사회갈등이 존재하나, 내전 재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스리랑카는 외채의존도가 높아 외채구조의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 비중이 높아 단기적으로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조사역 김지용 (☎02-3779-5716)

E-mail: jyk@koreaexim.go.kr